'널디' 품은 에이피알…미용기기 앞세워 9월 예심 청구"뷰티기기+화장품 양측 밸류 받을 것…매력적"내년 초 상장 목표…코스피·코스닥인진 결정 안돼  
  
  
  
널디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와 화제가 됐던 아이유가 출연한 <효리네 민박> /사진=JTBC '효리네민박' 캡쳐약 6년 전 '지코·아이유 트레이닝복'으로 유명세를 탄 스트리트 브랜드 널디. 당시 에이피알(APR)의 효자 브랜드였지만, 그때의 인지도는 온데간데없다. 래퍼 지코도 사업 초기 지분을 투자했지만, 현재는 정리했다. 이 에이피알이 미용기기를 앞세워 올 하반기 상장을 추진한다. 내년 초 증시 입성이 목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올 3분기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9월 제출해 내년 초 상장하겠단 게 회사 측 목표다.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조원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공개(IPO) 대표 주관사로는 신한투자증권을 선정했다. 에이피알은 뷰티 테크 기업이다. 배우 김희선을 모델로 기용한 피부미용 기기가 주력 사업이다. 메디큐브(뷰티기기), 널디(패션)를 비롯해, 에이프릴스킨(화장품), 포멘트(향수), 글램디바이오(보조제), 포토그래이(포토부스) 등 총 6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올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222억원, 영업이익은 2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0%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회사는 지난 6월 CJ ENM의 커머스 부문(CJ온스타일)으로부터 프리IPO를 유치하면서 1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신·구주 약 20억원을 투자받았다. 올 3월 중소기업은행, NH투자증권 등으로부터 8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가치 7080억원을 인정받은 것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몸값을 40% 넘게 높였다. 이 때문에 에이피알 기업가치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몸값 비싸다고?…"K뷰티 열풍 업고 수출 확대 기대"  
  
  
  
배우 김희선을 모델로 한 에이피알의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디큐브 에이지알'. 사진=에이피알하지만 회사는 뷰티기기 성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프레시언트앤스트래티직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12조원에서 연평균 25% 성장해 2030년 약 1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회사는 기획부터 연구개발(R&D), 생산, 판매까지 가능한 자체 뷰티기기 밸류체인(공급망)을 갖췄다. 밸류체인을 내재화한 국내 첫 중소형 뷰티기기 회사다. 뷰티기기 생산공장은 올 하반기 가동되며 점차 생산능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특히 R&D 시설을 적극 활용해 의료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도 있다. 회사의 전신인 화장품 브랜드 에이프릴스킨도 K뷰티 수출 시장 확대와 함께 성장세가 예상된다. 과거엔 화장품 수출 시장 타깃이 대부분 중국 시장이었다면 K팝 열풍으로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고객층이 넓혀지고 있어서다. 이미 회사는 지난해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에 진출해 있다. 해외 실적 성장세도 가파르다. 지난해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6% 늘었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두 배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수경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본격적으로 미용기기가 출시됐던 시점이 작년 3분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해외 성장세가 고무적"이라고 분석했다. 회사는 신규 시장을 추가로 개척한단 계획이다. 뷰티업계 잇단 상장…에이피알 IPO 순탄할까  
  
  
  
올 상반기 '마녀공장'을 시작으로 뷰티스킨 등 뷰티기업들의 상장이 잇따르면서 에이피알의 증시 입성에 투자업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으로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화장품 수요가 대폭 늘어난 점도 시장 전반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마녀공장은 상장 첫날 따상(시초가가 공모가 2배에 형성된 뒤 상한가)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뷰티 플랫폼 '화해'를 운영하는 버드뷰도 연내 상장을 목표로 지난달 초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냈다.정소연 교보증권 연구원은 "화장품과 미용기기 밸류에이션을 같이 받을 수 있는 회사라는 측면에서 매력적이라고 본다. 글로벌 수출, 온라인 채널 중심 등 최근 시장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다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장의 흐름을 대표하는 회사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 자금 쏠림이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소비주에 대한 소외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론 그렇게 볼 수 있다. 코로나 기간, 중국향 수출 피크아웃(정점통과) 등으로 인해 최근 화장품 섹터에 대한 시장의 피로도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은 조정 가능 구간이지만 결국 실적이라든지, 보여지는 소비 지표 등을 고려하면 화장품 업종은 계속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뉴진스. ‘아이유의 팔레트’ 캡처뉴진스가 성공한 아이유 덕후, 아이유의 ‘성덕’이 됐다.24일 아이유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이지금’의 ‘아이유의 팔레트’ 코너에는 대세 중의 대세 뉴진스가 게스트로 출연했다.아이유와 뉴진스 모두 가요계 최고의 스타인만큼 주목되는 만남이었다. 특히 뉴진스는 그동안 줄곧 아이유를 향한 팬심을 드러내왔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아이유가 준 선물과 편지를 인증하기도 했다.혜인은 “평소에도 아이유 선배님 노래를 많이 듣는다. 오늘 오늘 길에도 중간중간 ‘Love Pome’도 듣고 선배님 노래를 들으면서 왔다. 실제로 뵈니까 너무 떨린다”라며 팬심을 숨기지 못했다.아이유는 “아까 대기실에서 나오는데 혜인 씨랑 제일 먼저 마주쳤다. 혜인씨가 눈이 정말 커지시더라. 토끼처럼 눈이 땡그랗게 쳐다보셔서 저도 ‘와 뉴진스다’라고 실감이 났다. 저를 반짝이는 눈으로 봐주셔서 감사했다”라고 하자 혜인은 “더 반짝이십니다”라며 화답했다.   
뉴진스. ‘아이유의 팔레트’ 캡처이어 다니엘은 “우리가 ‘팔레트’에 나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신났다. 전에도 ‘팔레트’를 보면서 아이유 선배님과 직접 보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부르시는 걸 들을 수도 있다는 게 너무 꿈같은 일이다. 솔직히 선배님과 춤을 추고 싶다”라고 밝혔다.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팔레트’ 애청자 임을 밝히자 아이유는 “야... 우리 거 다 보고 있었구나. 열심히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라며 화이팅을 다짐했다.김도곤 온라인기자 kim2010@kyunghyang.com[스타뉴스 | 이경호 기자]   
/사진=유튜브 채널 '이지금'(IU Official]) 영상 캡처그룹 뉴진스(NewJeans.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5인 5색 매력을 뽐내며 가수 겸 배우 아이유도 팬으로 만들었다.24일 유튜브 채널 '이지금'(IU Official])의 코너 '[아이유의 팔레트]'에는 '뉴진스의 컬러 스위치요 (With 뉴진스) Ep.21'이 공개됐다. 이번 '아이유의 팔레트'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함께 했다. 아이유는 '아이유의 팔레트'(이하 '팔레트')에 출연한 뉴진스와 만나 기뻐했다. 또한 함께 한 밴드, 스태프들도 뉴진스와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이유는 녹화 전 혜인과 마주쳤던 에피소드도 털어놓았다. 그는 혜인과 제일 먼저 보고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뉴진스 멤버들은 '팔레트'에 출연한 소감을 밝혔다. 다니엘은 "처음 '팔레트'를 올 수 있다고 들었을 때, 저는 좀 많이 신났거든요. 제가 전에도 '팔레트' 보면서 아이유 선배님과 노래도 앞에서 부를 수 있고, 노래 부르시는 걸 들을 수도 있고 한게, 너무 꿈 같을 것 같고. 제가 너무 기대하고 왔고"라면서 "솔직히 선배님과 너무 춤을 추고 싶거든요. 너무 같이 춤추고 싶다"고 말했다.이후 아이유와 뉴진스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빵에 대해 남다른 철학을 갖고 있던 아이유는 혜인이 빵에 대해 '진지한 빵을 좋아한다'고 밝히자 "혜인 씨가 제일 신나는 빵을 좋아하지 않을까 했는데, 선입견이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아이유는 혜인과 공통된 숫자 2008을 언급했다. 아이유는 "저는 2008년 데뷔했는데, 혜인 씨는 2008년 출생이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제가 그때 장시에 방송국이나 어디에 가면, '중학생이 데뷔했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혜인 씨가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라면서 혜인과 공통점을 언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셀카 촬영 비법을 털어놓기도 했다. 특히 다니엘은 '후면 셀카 비법'에 "조명"을 언급했다. 또한 멤버들은 포토 카드에 적합한 사진 촬영 각도도 직접 시연했고, 아이유는 감탄했다. 뉴진스는 새 앨범 준비 과정에 대한 속내도 털어놓았다. 아이유가 "힘들지는 않았는지"라고 묻자, 하니는 "재미있었다"라면서 "준비하고 작업하는 시기가 흥미와 재비가 많은 것 같다. 앞으로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라고 말했다. 또 다니엘은 "같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멤버들과 함께 하는 것에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을 전했다. 뉴진스 하니는 미니 2집 'Get Up'의 타이틀 곡 중 하나 'Super Shy'의 안무 비하인드도 공개했다. 그는 첫 안무를 받고 5시간 연습을 했다고 털어놓으며 "집 가서 샤워했는데 팔이 안 올라갔다"라면서 멤버 모두 같은 일을 겪었다고 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미니 2집 'Get Up' 수록곡 중 각자 생각한 최애곡도 공개했다. 먼저, 혜인은 'Get Up'을 손꼽으며 "약간 R&B 느낌이 나면서 몽환적 느낌이 나는 곡이다. 멤버들 목소리 매력이 잘 느껴지는 곡이라 좋아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니엘은 "첫 곡(앨범 수록 순서) 'New Jeans'다. 곡 제목이 'New Jeans'다.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이 앨범 대박이다' 했어요"라고 밝혔다. 또한 민지는 "저는 타이틀 두 곡 중에 고민이다. 매일 날마다 달라지는 것 같다"라면서 "텐션 높은 날에는 'ETA'다. 되게 신나거든요"라고 말했다. 이어 "차분한 날에는 'Cool With You'다"고 덧붙였다. 해린은 "제 머릿속에 있는 건 일단 세 곡이다"고 말했고, 이에 아이유가 세 곡은 안된다면서 두 곡으로 추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해린은 "저는 'Super Shy', 'ETA'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요즘 노래 스타일이 시기마다 바뀐다. 비트가 세고 많고, 리듬감 있는 노래 듣는 시기가 찾아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니는 "뮤비 찍고 준비하면서 이 노래랑 같이 생긴 추억들이 너무 많았다. 고르기 진짜 어려웠는데. 이제는 말을 해야해요"라면서 "'Super Shy'"라고 말했다. 또한 뉴진스는 '팔레트'에서 아이유와 게스트의 노래를 바꿔 부르는 코너의 명칭을 '컬러 스위치'라고 제안했고, 아이유는 이를 받아들였다.   
/사진=유튜브 채널 '이지금'(IU Official]) 영상 캡처뉴진스는 데뷔 1년차 소감도 밝혔다. 해리은 지난 1년 데뷔 후 보낸 시간에 대해 "빠른데, 빠르면서도 느리게 흘러간 거 같았다. 뭔가 되게 이상한 1년을 보낸 느낌이다"고 말했다. 또 민지는 데뷔 후 신기하거나 이상한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 겨울에 롱패딩 입고 손가락만 보이는 상태에서 편의점 갔는데, 어떤 물건이 있는지 점원에게 여쭤봤는데. 멈칫하더니 나갈 때 조용히 저를 붙잡고 버니즈에요라고 했다"라면서 "제가 손가락만 보였는데. 목소리밖에 안 들리셨을 텐데. 데뷔한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알아봐 주셨다)"라면서 "'저는 뉴진스예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끝으로 뉴진스 멤버들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대해 '팔레트'에 출연해 아이유를 만난 것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혜인은 "어릴 때 선배님 관련된 추억이 많지만, 오늘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노래도 직접 선배님 앞에서 부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했다. 다니엘은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2년 정도 있었다. 6살 때 쯤"이라면서 "생생한 추억이 있는데, 언니랑 선배님의 '좋은 날' 들으면서 엄청 춤추고 뛰어 놀았던 기억이 있다. 그게 제가 K팝 사랑의 시작점이었다. 이 시간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거 같다"고 밝혀 아이유를 감동케 했다. 아이유는 뉴진스 멤버들의 연이은 감사 인사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다섯 분이 저를 칭찬 감옥에 가둬주셔서"라면서부끄러워했다. 그는 "'팔레트' 녹화하기 전에도 관심 있는 아티스트이기도 했고, 음악 외적으로도 뉴진스 한분 한분 매력을 알아가는 것 같아. 팬이 될 것 같다. 버니즈(뉴진스 팬덤)가 될 것 같다"라면서 "다들 사랑해 마지않는 뉴진스인지 오늘 잘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21일 미니 2집 'Get Up'를 발매했다. 이번 앨범은 트리플 타이틀 곡 트리플 타이틀곡 'Super Shy', 'ETA', 'Cool With You'를 비롯해 프롤로그곡 'New Jeans', 인터루드곡 'Get Up', 에필로그곡 'ASAP' 등 총 6곡이 담겼다.스타들이 루머로 곤욕을 겪고 있다. 배우 박선영은 25일 SBS '강심장리그'에 출연해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FC불나방 팀의 캡틴을 맡았던 박선영은 50대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축구 실력과 열정으로 MVP를 따낸 것은 물론 팀의 우승까지 이끌며 명불허전 에이스로 활약했다. 최근에는 배우인지 선수인지 모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보통 연예인이면 예능국에서 섭외가 와야 하는데 저는 스포츠국에서 섭외가 왔다. 2023 아시안컵 유치 홍보대사 섭외가 들어오기도 했다"라며 "작년에는 '한국을 빛낸 10인의 대상'에 상을 준다고 오라고 하셔서 갔는데 스포츠 공로 부문으로 상을 받았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박선영은 이날 '승부욕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는 루머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선영은 "시즌 1 때 저희 팀 평균연령이 47.3세였다. 그 팀으로 우승한 건 기적이다. 저도 경기를 치르면서 부상이 있었다. 축구를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멀리 보면 나중에는 더 큰 무리가 올 수도 있겠더라. 지금은 재활 중"이라며 직접 해명했다. '감독에 불만족한 나머지 감독 교체까지 감행했다'는 소문에는 "프로그램 안보셨나. 매 시즌마다 다른 팀도 감독이 바뀐다"라고 반박했다. '경기 중 상대 팀 선수였던 신봉선을 내던졌다'는 루머에는 "던지진 않았고 던지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의욕이 넘쳤던 신봉선이 계속 팀 멤버들과 충돌사고가 있었다. 처음엔 슬쩍 피하다가 두 번째는 살짝 밀었다. 파울을 당하니까 화가 나더라. 바쁜 시합 중에 제가 말했다. '만약에 한 번만 더 달려오면 안 피하고 던지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봉선 씨는 '뭐야 저 언니?'라고 화가 났던 것 같다. 시합 끝나고 가서 '다칠까봐 그랬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도 화가 나있더라. 나중에서야 봉선 씨가 '내가 몰라서 그랬다. 언니가 다칠까봐 그랬던 걸 이제 알았다'라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배우 겸 방송인 정소녀도 최근 프로그램에서 과거 악성 루머로 고생했던 일화를 털어놨다. 23일 KBS2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3'에 출연한 정소녀는 터무니 없는 루머를 듣고 연예계에서 일한 것을 후회했다고 전했다. 한때 분노로 마음이 꽉 차 있었다는 정소녀는 "내가 흑인 아이를 출산했다는 루머가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생각했다. 대상도 없는 누군가를 원망했었다. 그때 처음으로 연예계에서 일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었다"고 회상했다. 허무맹랑한 헛소문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직접 잡기도 했다고. 박원숙은 "화장실에서 (정소녀에 대해) 헛소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을 얘가 잡은거다"라고 말했다. 정소녀는 "복도에 내 이야기가 울렸다. 그 사람 뒤에 서있었다. 나를 보고 놀라더라. 그 사람한테 '내가 그런거 당신이 봤냐', '경찰서 가자'고 했다. 그 사람이 본인도 들은 거라고 했다. 내가 '근데 왜 본 것처럼 이야기하냐'라고 했었다"고 전했다.   
가수 아이유도 지속적인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5월 시민 A씨가 아이유의 '분홍신', '좋은날' 등 6곡이 국내외 뮤지션의 곡을 표정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 아이유가 간첩설을 비롯해 터무니 없는 악성 루머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온 것도 알려졌다.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를 향해 지속적으로 표절 의혹과 근거 없는 내용의 간첩 루머, 성적인 비방 등을 일삼아 오던 세력"이라며 "고발인은 작곡가들을 상대로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이유 만을 상대로 하고 있다. 오로지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흠집 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밝히며 법적으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모델 겸 방송인 주우재는 방송인 유재석과의 친분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들어갔다는 루머를 해명했다. 최근 주우재는 MBC '놀면 뭐하니'에 캐스팅 됐다. 이에 평소 유재석과 친분이 있었던 주우재가 '인맥'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나돌았다. 이에 대해 유재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온라인 채널 '뜬뜬'에 주우재가 게스트로 등장하자 "녹화를 몇 번 같이 하면 사람들이 '묶어서' 유라인 이라고 하시더라"라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 실제로 주우재랑 친하고 좋아한다. 그렇다고 친하다는 이유로 절대 프로그램에 캐스팅하지 않는다"라며 캐스팅 루머에 선을 그었다. 주우재 역시 "제가 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 들어간 곳에 재석이 형이 있는 것"이라며 "사실 저 형이 그렇게까지 저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재치 있게 루머를 해명했다. 그리고는 "굳이 따지자면 저는 김숙 라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진=SBS '강심장 리그', KBS2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3', TV리포트 DB[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그룹 뉴진스가 선배 가수 아이유의 미모에 반했다. 24일 아이유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이지금'에는 '[아이유의 팔레트] 뉴진스의 컬러 스위치요 (With 뉴진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아이유는 다니엘과 셀카를 찍는 스타일이 같다고 했다. 둘 다 후면 셀카를 찍는다는 것. 아이유는 "제가 또 어디가서 후면 셀카 빠지지 않는데 본인 만의 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다니엘은 "두 가지 팁이 있다. 조명이 조금 중요하다. 앵글도 생각보다 안 보이니까 그것도 꽤나 연습했다. 선배님처럼 멋있게 찍을 수 있게 연습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아이유는 혜인에게는 "자신만의 감성으로 사진을 잘 찍는다던데 어떤 독특함이 있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혜인은 "원래 시작은 메이크업을 받은 언니들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엄청 많이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만의 팁이 생겼다"고 밝혔다.   
혜인은 "힙한 느낌으로 찍고 싶으면 어두운 데서 플래시를 터트리고 광각을 설정하고 위에서 찍으면 예쁘게 나온다"며 "약간 뾰로롱 이런 느낌, 여신 느낌으로 (찍고 싶으면) 가로로 세팅 후에 옆모습 위주로 찍으면 분위기가 예쁘더라. 특히 민지 언니한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듣고 아이유는 "초면에 부탁을 드려 죄송한데, 저를 찍으면 어떤 느낌으로 찍어줄 수 있냐"고 혜인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했다. 부탁받은 혜인은 "아무렇게나 찍어도 솔직히 너무 예쁘실 것 같은데"라고 고백하며 웃었다.민망해진 아이유는 "혜인 씨가 원하는 포즈를 다 하겠다"며 딱 3장만 찍어달라고 요청했고, 혜인은 휴대폰을 꺼내 아이유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너무 예쁜데"라며 아이유의 미모에 감탄했다. [사진 = '아이유의 팔레트' 영상 캡처](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텐아시아=류예지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럭셔리한 패션으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아이유는 지난 18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영화 '밀수'(감독 류승완) VIP 언론시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아이유는 상큼한 단발머리로 등장했다. 동시에 그린색 가디건을 착용해 더욱 청량한 느낌을 연출했다. 아이유가 착용한 가디건은 R사 제품으로 34만 5000뭔이다.또 자신이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G사 미니백을 매치했다. 골드 톤 클래스프로 포인트를 준 해당 가방은 310만원을 호가한다.   
   
함께 착용한 목걸이는 명품 V사 제품으로 216만원이다. 은은하게 포인트를 주며 일명 '꾸안꾸'룩을 완성했다.   
'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범죄활극으로 오는 26일 개봉한다.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최근 드라마 '악귀'로 인기몰이 중인 배우 오정세가 차기작으로 '폭싹 속았수다'를 선택했다.소속사 프레인TPC는 지난 25일 오정세가 임상춘 작가의 신작 '폭싹 속았수다'에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다.   
배우 오정세가 지난 6월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홀에서 진행된 SBS 새 금토드라마 '악귀'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폭싹 속았수다'는 1950년대 제주에서 태어난 '요망 진 반항아' 애순(아이유 분)과 '팔불출 부쇠' 관식이(박보검 분)의 모험 가능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작품이다. '폭싹 속았수다'는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의 제주도 방언이다.오정세는 지난 2019년 최고 시청률 23.8%를 기록했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찌질한 남자 노규태 역을 열연하면서 KBS 조연상을 받았다. 이듬해 제 56회 백상예술대상에서도 조연상을 수상했다.   
오정세가 SBS 드라마 '악귀'에서 염해상 역을 연기하고 있다. [사진=스튜디오S]이어 최근 SBS 드라마 '악귀'에서 염해상 역을 맡으면서 대중으로부터 호평이 자자하다. 이런 그가 '폭싹 속았수다'를 통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이뿐만 아니다. 오정세는 드라마 '굿 보이' 출연을 제안받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뉴스엔 박수인 기자] 배우 오정세가 '폭싹 속았수다'에 출연한다.소속사 프레인TPC 측은 7월 25일 뉴스엔에 "넷플릭스 새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출연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폭싹 속았수다'는 1950년대 제주에서 태어난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 관식이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드라마. 오정세는 KBS 2TV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이후 임상춘 작가와 재회하게 됐다. '폭싹 속았수다'에는 배우 아이유, 박보검, 이준영 등이 출연하는 가운데 오정세와 연기 호흡을 기대케 한다.한편 오정세는 SBS 금토드라마 '악귀'에 출연 중이며 'Mr. 플랑크톤', '이재, 곧 죽습니다', '스위트홈2'에 출연한다. (사진=뉴스엔 DB)[뉴스엔 박수인 기자] 밴드 크라잉넛 한경록이 배우 이선균과 만났다.한경록은 최근 개인 SNS에 이선균, 이원석 감독과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한경록, 이선균, 이원석 감독은 아이유 등신대를 사이에 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한경록, 이선균이 병맥주를 부딪히며 미소짓고 있다.한경록은 사진과 함께 "나의 봉골레 아저씨 이츠�� 형과 놀다가 비행기 쨌다. 홍대 아님 뉴욕임"이라고 덧붙여 미국 뉴욕에서 술자리를 즐기다 귀국 비행기를 타지 않았음을 알렸다.한편 이선균은 이원석 감독이 연출한 영화 '킬링 로맨스'에서 조나단 역을 맡았다. (사진=한경록 SNS)영화 ‘밀수’ VIP 시사회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렸다.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가 출연하는 영화 ‘밀수’는 평화롭던 바닷가 마을 사람들이 바닷속에 던진 물건을 건져 올리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휘말리며 거대한 밀수판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해양범죄 활극 영화다.VIP 시사회에 참석한 아이유.   
이날 VIP 시사회에는 배우 전소민, 블랙핑크 지수, 류승룡, 임지연, 장민호, 이승기, 류현경, 아이유, 장기하, 임윤아, 안보현, 최지우, 정해인, 한지민 등이 참석했다.영화는 7월 26일 개봉된다.코엑스(서울)=천정환 MK스포츠 기자박성자 승일희망재단 이사(왼쪽 셋째)와 직원들이 전문요양병원 건립 모금을 위한 팔찌 등 기념상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종호 기자 “2023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도전합니다. 이 도전에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사람으로 박보검, 아이유, 조원희를 지목합니다.”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에서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인 가수 션은 이렇게 말한 뒤 얼음물을 뒤집어썼다. 지목된 가수 아이유 등도 역시 챌린지 동영상을 올리며 챌린지를 이어나갔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2014년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에 대한 관심과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됐다. 2018년 무렵 사라졌던 이 챌린지를 루게릭요양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승일희망재단이 되살렸다.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인 션의 지목으로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참여한 아이유. [SNS 캡처] 루게릭병 환자인 전 프로농구 선수 박승일(52)씨가 2011년 설립한 재단은 경기 용인시 모현읍에 전문 요양병원(76병상)을 건립할 계획이다. 루게릭병의 경우 24시간 옆에서 인공호흡기를 확인하는 등 환자를 살펴야 한다.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워 가족의 희생이 너무 크다. 박승일씨가 요양병원 건립을 간절히 꿈꿨던 배경이다. 2020년 완공 예정이던 요양센터는 아직 첫 삽도 못 떴다. 200억원 넘는 건립 비용이 문제였다. 코로나19로 모금이 차질을 빚었고, 그사이 자재·인건비 등이 30~40% 올랐다. 지난해 정부가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20억원 정도 부족하다. 재단은 오는 9월 착공해 2024년 10월 준공할 계획이다. 아이스버킷챌린지 부활 아이디어를 낸 건 션이다. 션은 재단의 고액 기부자이기도 하다. 그간 많은 유명인사가 요양병원 건립에 힘을 보탰다. 2012년부터 기금 마련 콘서트가 12차례 열렸는데, 션이 소속된 그룹 지누션을 비롯해 윤도현, 양동근, 소녀시대, 타이거JK 등이 무보수로 출연했다. 재단은 콘서트도 재개할 계획이다. 박성자(56) 재단 상임이사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얼음물을 맞으며 루게릭병 환우의 고통을 간접 체험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기부도 좋지만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꼭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OSEN=박소영 기자] 한국 록의 전설 산울림의 음악을 아티스트의 의도가 충실히 반영된 새로운 리마스터 음원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1977년 김창완, 김창훈, 김창익의 세 형제로 결성되어 신선하고 파격적인 음악과 함께 등장한 산울림은 <아니 벌써>를 비롯하여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나 어떡해>, <개구장이>, <산할아버지>, <창문 너무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가지 마오>, <청춘>, <회상>, <너의 의미>,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등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수많은 명곡들을 남긴 그룹이다. 1977년부터 1997년까지 정규 앨범 13장과 어린이를 위한 동요 앨범 4장을 남긴 산울림의 유산은 지난 가을부터 새롭게 LP로 재발매되며 팬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오리지널 마스터 테이프에서 섬세하게 공들인 리마스터 작업을 통해 탄생한 전에 없던 뛰어난 사운드를 이제는 양질의 디지털 음원으로 편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산울림의 리더인 김창완과 함께 ‘산울림 리마스터 프로젝트’를 주도해 온 주식회사 뮤직버스는 LP 재발매에 이어 새로운 소리를 담은 음원을 출시하며 “옛 팬들은 물론 젊은 세대에게까지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산울림의 음악을 최상의 음질로 즐기며 시대를 초월한 깊은 매혹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이들이 산울림의 매력에 빠져들게 될 거라 자신했다. 더불어 개인의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산울림 곡을 ‘2023년 리마스터’ 버전으로 교체할 것을 권했다.디지털 음원을 위한 리마스터 작업은 한국인 최초로 그래미상을 수상한 엔지니어 황병준이 맡았다. 그는 김창완이 보관하고 있던 릴 테이프로부터 디지털로 변환한 파일을 휴대폰이나 컴퓨터, 디지털 오디오 등 우리가 흔히 음악을 듣는 기기에서 최적화한 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소리의 해상도가 높아져서 다소 흐릿하게 뭉개져 있던 소리의 질감이 더할 나위 없이 선명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각각의 악기와 목소리는 뚜렷하게 제자리를 찾아 균형을 이루며, 보다 깊고 넓어진 중저음과 말끔해진 고역대가 이루는 조화로 인해 생생한 사운드가 펼쳐진다.산울림의 음악은 김필이 노래한 <청춘>, 아이유의 <너의 의미>, 장범준의 <회상> 등 수많은 리메이크는 물론 여러 드라마와 영화, 광고 삽입곡 등으로 젊은 층에게 친숙해져 있다. 최근에는 류승완 감독의 영화 ‘밀수’에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가 화려한 액션 신에 사용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7월 20일부터 각 음원 사이트에 1~6집의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8월 말에는 7~9집이 서비스될 예정이다.김창완밴드는 오는 8월 6일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설 것을 예고하며 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산울림의 리마스터 앨범들은 멜론, 지니, 플로, 벅스, 바이브 등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서 감상할 수 있다./comet568@osen.co.kr[사진] 산울림[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아이유가 그룹 뉴진스와 만났다.24일 가수 겸 배우 아이유는 개인 채널 스토리에 "오늘 6pm 팔레트x뉴진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뉴진스 멤버들과 아이유가 서로 손을 맞댄 채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팔레트' 게스트로 뉴진스 출연이 예고되며 이들 가요계 선후배들이 어떤 이야기를 펼쳤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뉴진스는 최근 선공개곡 'Super Shy'를 비롯해 미니 2집 'Get Up'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아이유는 임상춘 작가의 신작 '폭싹 속았수다'를 차기작으로 선택했다. '폭싹 속았수다'는 당초 '인생'이라는 가제로 알려진 작품으로, 1950년대 제주에서 태어난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 관식이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드라마다.[서울=뉴시스] 혜미. 2023.07.18 (사진=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 영상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서예진 기자 = 그룹 '피에스타' 출신 혜미가 아이유와 친분을 언급했다.혜미는 18일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에서 "아이유와 같은 소속사였다. 아이유가 홍보도 많이 해줬다"며 "내가 처음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아이유와 살던 숙소가 굉장히 좋았다. 60~70평에 대리석 바닥이었다"고 귀띔했다. "그때 아이유랑 많이 친했다. 아이유가 첫 정산 받고 주변에 선물하고, 나한테도 명품 가방을 사줬다. 엄청 의리있는 친구"라며 "아이유랑 엠블랙 천둥이 먼저 잘 됐다. 놀이동산에 가서 가면 쓰고 놀았다"고 회상했다.혜미는 2018년 피에스타 해체 후 사업가로 변신했다. "피에스타 활동이 끝난 지 5~6년 됐다. 현재 50평 규모 연습실 공간 대여 사업을 하고 있다. (연습실을 차리는 데) 대략 1억원이 들었다. 매출은 보통 회사원 버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5년 정도 활동했는데, 정산을 못 받았다"며 "회사 입장은 이해한다.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정산을 해줄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사주고, 매달 용돈도 줬다"고 했다.[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위부터)소녀시대, 방탄소년단/사진=민선유 기자소녀시대부터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K팝 명곡에 들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음악잡지 롤링스톤(Rolling Stone)은 역대 최고 K팝 100곡(The 100 Greatest Songs in the History of Korean Pop Music)을 선정했다. 롤링스톤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한류 스타들 등장 이전 많은 국내 아티스트들이 K팝의 길을 닦았다"며 "가장 초기 곡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했다.먼저 1위에 선정된 곡은 소녀시대의 'Gee'로, 롤링스톤은 "이 불후의 히트곡은 빠르게 반복되는 음절이 넘쳐나고 모든 말이 기쁨의 의성어 표현"이라며 "미학으로서 애교(aegyo, 귀여운 행동과 말을 뜻하는 한국 용어)가 어떻게 발휘되는지 보여준다"고 했다.2위에 오른 HOT 히트곡 '캔디'에 이어 3위는 아이유 '좋은 날'이었다. 롤링스톤은 "아이유는 목소리로 3단 고음을 성공시켰고 이는 그를 한국의 전설적인 가수 중 하나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어 4위인 방탄소년단의 '봄날'에 대해선 "우정과 슬픔, 후회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명상"이라며 "복잡한 감정을 보편적 팝송으로 압축시키는 방탄소년단만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라고 평했다.   
조용필, 아이유/사진=헤럴드POP DB5위는 1980년 발표된 조용필의 '단발머리'로 롤링스톤은 "기발한 가성, 비현실적인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메이저 세븐 화음이 어우러진 곡"이라며 "장훈 감독 영화 '택시운전사'에 사용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6~10위는 블랙핑크의 '뚜두뚜두(DDU-DU DDU-DU)', 빅뱅의 '하루하루', 2NE1 '내가 제일 잘 나가',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 '원더걸스 'Tell Me(텔미)'가 포진했다.지난 1999년 발표곡인 이정현의 '와'에 이어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Sorry Sorry', 레드벨벳 '빨간 맛'이 11~13위를 기록했다. 1974년 나온 신중현과 엽전들의 '미인', 그리고 트와이스 'TT', 샤이니 '루시퍼', F(x)의 '4 Walls', 보아 'No.1', 뉴진스 'Ditto', 1935년 나온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등이 그 뒤를 이었다.(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아이유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밀수'(감독 류승완) VIP 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범죄 활극이다. 2023.7.20/뉴스1(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밴드 크라잉넛의 베이시스트 한경록이 뉴욕에서 뜻밖의 만남을 가졌다.한경록은 지난 24일 "나의 봉골레 아저씨 이츠귯 형과 놀다가 비행기 쨌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 한경록은 '킬링 로맨스'의 이선균, 이원석 감독과 함께 인증샷을 찍고 있다.이들 가운데에는 아이유(IU, 이지은)도 있었는데, 그가 광고모델로 활약 중인 한 소주 브랜드의 입간판이었던 터라 시선을 사로잡았다.이와 함께 한경록은 "#doyouknowparasite #이선균 #캡틴락 #홍대아님 #뉴욕임"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여 웃음을 줬다.한편, 1977년생으로 만 46세인 한경록은 1993년 크라잉넛을 결성,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사진= 한경록(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아이유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밀수'(감독 류승완) VIP 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범죄 활극이다. 2023.7.20/뉴스1(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배우 아이유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밀수'(감독 류승완) VIP 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범죄 활극이다. 2023.7.20/뉴스1(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아이유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밀수'(감독 류승완) VIP 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범죄 활극이다. 2023.7.20/뉴스1아이유가 밝은 표정으로 포토월에 섰습니다.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밀수’ VIP 시사회가 열렸습니다.시사회에 참석한 아이유가 영화 관람에 앞서 진행된 포토타임을 위해 무대로 오르고 있습니다.아이유의 사진에서 다른 부분 5군데를 찾아보세요.   
이날 VIP 시사회에는 아이유를 비롯해 배우 전소민, 블랙핑크 지수, 류승룡, 임지연, 장민호, 이승기, 류현경,장기하, 임윤아, 안보현, 최지우, 정해인, 한지민 등이 참석했습니다.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가 출연하는 영화 ‘밀수’는 평화롭던 바닷가 마을 사람들이 바닷속에 던진 물건을 건져 올리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휘말리며 거대한 밀수판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해양범죄 활극 영화입니다.영화 ‘밀수’는 오는 7월 26일 개봉될 예정입니다.사진=천정환 MK스포츠 기자‘틀린그림찾기’의 정답은 아래 있습니다.   
‘틀린그림찾기’의 정답을 모두 찾으셨나요.정답을 공개합니다.첫 번째, 아이유의 단발머리 길이가 살짝 길어졌습니다.두 번째, 카디건 윗단추입니다.세 번째, 티셔츠 가운데 검정색이 사라졌습니다.네 번째, 핸드백 장식입니다.다섯 번째, 배경사진 왼쪽 아래부분이 추가됐습니다.영화 '밀수' 쇼케이스 및 VIP시사회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렸다.배우 아이유가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는 해양범죄활극이다. 오는 26일 개봉.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7.20/영화 '밀수' 쇼케이스 및 VIP시사회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렸다.배우 아이유가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는 해양범죄활극이다. 오는 26일 개봉.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7.20/[스타뉴스 | 이동훈 기자]   
아이유 '깜찍 미모'[★포토]가수 아이유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진행된 영화 '밀수'(감독 류승완) VIP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7.20[스타뉴스 | 이동훈 기자]   
아이유 '깜찍한 패션센스'[★포토]가수 아이유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진행된 영화 '밀수'(감독 류승완) VIP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7.20아이유 '밀수' VIP 시사회 참석   
가수 아이유가 수줍은 단발 소녀로 변신했다.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아이유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밀수'(감독 류승완) VIP 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배우 아이유가 러블리한 미모를 자랑했다.아이유는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밀수'(감독 류승완) VIP 시사회를 찾았다.이날 아이유는 파스텔 톤의 원피스에 카디건을 입고 나타나 눈부신 비주얼을 뽐냈다. 그는 어깨가 조금 안되는 기장에 층을 준 단발머리로 시원한 여름 소녀의 무드를 자아냈다. 한편 아이유는 현재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촬영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가수 아이유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밀수'(감독 류승완) VIP 시사회에 팬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서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아이유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밀수'(감독 류승완) VIP 시사회에서 환호하는 팬에게 손 인사로 화답하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아이유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밀수'(감독 류승완) VIP 시사회에서 환호하는 팬에게 하트를 보내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아이유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밀수'(감독 류승완) VIP 시사회에서 짧아진 머리를 만지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아이유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밀수'(감독 류승완) VIP 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아이유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밀수'(감독 류승완) VIP 시사회에서 하트를 그리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아이유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밀수'(감독 류승완) VIP 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 캡처 피에스타 출신 혜미가 아이유와의 추억을 회상했다. 1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 콘텐트에는 피에스타 리드보컬 혜미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혜미는 근황을 물어보는 질문에 "연습실 공간 대여를 하고 있다. 50평 정도 된다"며 "인테리어 공부를 엄청 많이 했다. 완전히 빈 곳을 찾았는데 사소한 것들도 모두 내가 정했다. (매출은) 보통 회사원 분들 버는 정도"고 털어놨다. 혜미는 아이유와 같은 소속사였다며 "내가 처음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아이유랑 같이 살던 숙소는 굉장히 좋았다. 나는 숙소를 가면 60~70평이었다. 그때는 아이유와 많이 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유가 첫 정산됐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선물을 돌렸다. 나한테는 명품 가방을 사줬다. 엄청 의리 있는 친구"라고 덧붙였다. 또한 혜미는 피에스타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그는 "항상 바쁘고 활동을 많이 했는데 정산을 못 받았다. 우리는 5년 정도 활동했다. 완전히 회사 입장을 이해한다. 당연히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정산해 줄 수 있는 거였다"고 이야기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 캡처[FN스타 이승훈 기자] 배우 겸 가수 아이유가 20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진행된 영화 '밀수' 쇼케이스 및 VIP시사회에 참석했다. 류승완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 등이 출연하는 영화 '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범죄활극으로 오는 26일 개봉 예정이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3초 분량의 목소리 샘플만 있어도 복제현행법 상 목소리 도용 인지해도 막기 어려워법무부,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두에 민법 개정 나서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에서 가수 아이유와 백예린이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신곡 ‘슈퍼샤이(super shy)’를 번갈아 부른다. 이는 진짜 가수가 아닌 AI(인공지능) 아이유와 AI 백예린이 부른 곡이다. 아이유와 백예린의 팬이 들어도 AI인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다.  
  
  
  
가수 아이유(왼쪽)와 뉴진스./조선DB 최근 유튜브에서 AI 가수 커버(Cover)곡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 커버곡이란 특정 의도를 반영해 재연주 또는 재가창하는 것이다.AI 가수 커버곡은 생성형 AI가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해 똑같이 따라하면서 만들어진다.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3초 분량의 목소리 샘플만 있어도 완벽히 복제한다.AI 가수 커버곡 유튜브 채널에는 사용자들이 듣고 싶은 가수와 곡을 댓글로 요청하고, 음색이 좋다고 평가받는 가수들 위주로 콘텐츠가 올라온다.현재 유튜브 등에서 AI 아이유, AI 김동률, AI 박효신 등을 검색하면 이들이 부른 다른 가수의 유명곡들이 쏟아진다. 국내 가수뿐 아니라 브루노 마스, 프레디 머큐리, 마이클 잭슨, 아리아나 그란데 등의 AI 커버곡도 넘친다. 프레디 머큐리가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와 정인의 ‘오르막길’을 부르기도 한다. 브루노 마스가 뉴진스의 ‘하이프 보이’를 부른 영상도 화제를 모으며 ‘원곡보다 훨씬 좋다’는 댓글이 달릴 정도다.  
  
  
  
AI 아이유가 부르는 슈퍼샤이 유튜브 콘텐츠./유튜브 갈무리 문제는 이러한 가수들의 목소리가 무단 도용됐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 침해를 경고하고 있다.퍼블리시티권이란 가수, 영화배우,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다. 사람의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는 다르다.현재 법적으로 목소리 등 음성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막기가 어렵다. 특허청 조사 결과 지난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연예기획사는 응답 회사의 8.6%를 차지했다.퍼블리시티권 전담팀이나 인력을 보유한 기획사는 20%가 안 되며, 기획사의 60% 이상이 인력 부족으로 침해 사실 자체를 알아내는 게 어렵다고 답했다.이는 한국 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4월 캐나다 인기 가수 위켄드와 드레이크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합성해 만든 ‘하트 온 마이 슬리브’라는 노래가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 등에서 발매됐다. 하지만 두 가수의 소속사인 유니버설뮤직 그룹이 저작권을 이유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 발매된 지 4시간 만에 삭제되는 소동이 벌어졌다.앞서 미국 저작권청은 지난 3월 AI를 저작권자로 등록하거나 AI가 생성한 것을 자신의 창작물로 속여 저작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공표한 바 있다. 미국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통일된 연방법이 없지만 여러 주가 주법에 명문화해 재산권으로 적극 인정한다.한국 법무부에서도 성명·초상·음성 등을 포함하는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AI로 인한 음성 침해 도용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해당 연예인이나 소속사에서 발 벗고 나설 것”이라며 “내년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민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걸그룹 피에스타 출신 혜미가 아이유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사진=근황올림픽 유튜브 캡처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미담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피에스타 출신 혜미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에서 "아이유와 같은 소속사였다. 아이유가 홍보도 많이 해줬다"며 "내가 처음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아이유와 살던 숙소가 굉장히 좋았다. 60~70평에 대리석 바닥이었다"고 귀띔했다.공개된 영상에서 혜미는 "그때 아이유랑 많이 친했다. 아이유가 첫 정산 받고 주변에 선물하고, 나한테도 명품 가방을 사줬다. 엄청 의리있는 친구"라며 "아이유랑 엠블랙 천둥이 먼저 잘 됐다. 놀이동산에 가서 가면 쓰고 놀았다"고 회상했다.혜미는 지난 2018년 피에스타 해체 후 사업가로 변신했다. 그는 "피에스타 활동이 끝난 지 5~6년 됐다. 현재 50평 규모 연습실 공간 대여 사업을 하고 있다. (연습실을 차리는 데) 대략 1억원이 들었다. 매출은 보통 회사원 버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피에스타 활동에 대해 "항상 바쁘고, 활동을 많이 했다. 정산을 못 받았다. 5년 정도 활동했다. 완전히 회사 입장을 이해한다. 최대한 잘해주신 것도 안다. 회사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도 구입해줬다. 매달 용돈을 주셨다"라고 밝혔다.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는 혜미는 "해체 후 불안했다. 혼란스러웠다. 20대 후반이 됐을 때 내가 엄청 성공하지 않아서 좋았다. 고생해서 깨닫고 얻은 게 많다. 뭐든지 기회가 오면 해야겠다"라고 말했다.[OSEN=최규한 기자]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영화 ‘밀수’ (감독 류승완) 쇼케이스 및 VIP시사회가 열렸다.영화 ‘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 범죄 활극이다.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VIP시사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2023.07.20 / dreamer@osen.co.kr[FN스타 이승훈 기자] 배우 겸 가수 아이유가 20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진행된 영화 '밀수' 쇼케이스 및 VIP시사회에 참석했다. 류승완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 등이 출연하는 영화 '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범죄활극으로 오는 26일 개봉 예정이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승일희망재단 “국내 최초 루게릭 병원 착공”... 2023 아이스버킷 챌린지 시작  
  
  
  
가수 아이유가 가수 션의 지목을 받아 2023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11일 동참했다. /인스타그램   
  
  
  
가수 아이유가 가수 션의 지목을 받아 2023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11일 동참했다. /인스타그램 12년간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힘써온 가수 션이 올해 착공 소식을 알리며 2023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10일 시작했다. 션의 지목을 받은 가수 아이유, 배우 박보검, 조원희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챌린지의 바통을 이어받았다.루게릭병(근위축성 측색 경화증·ALS) 환자를 위한 재단법인 ‘승일희망재단’의 대표 션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3 아이스버킷 챌린지 부활 소식을 알렸다. 그는 “루게릭병 환우 박승일 농구코치가 2002년부터 꿈꾸었던 국내 최초 루게릭요양병원이 올해 드디어 착공하게 되었다. 총 예산은 203억원”이라며 “병원 건립은 이제 더 이상 박승일 한 사람의 꿈이 아닌 우리들의 꿈이 됐다. 착공을 시작으로 완공을 기대하며 벽돌 한 장씩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했다.그는 “2009년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박승일 농구선수를 만나고 그가 꿈꾸던 대한민국 첫번째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긴 여정이었고, 쉽지 않은 길이었다”며 “제가 생각하는 선행의 의미는 내가 먼저 하는 행동이기에 저와 아내는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재단에 기부했고, 단 한번도 재단에서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또 “2014년, 2018년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 온 국민이 루게릭병에 관심을 가져 주셨고 덕분에 2018년 병원이 건립될 토지를 구입하게 됐다”며 “희망을 품고 계속 갈 수 있었던 건 챌린지에 함께해주셨던 수많은 분들의 힘이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2023 아이스버킷 챌린지 시작을 알린 션. /인스타그램 2023 챌린지를 시작한 션은 다음 타자로 아이유, 박보검, 조원희를 지목했다. 아이유와 조원희는 11일 인스타그램에서 챌린지에 동참하며 응원했다. 아이유는 “앞으로도 많은 분의 응원과 성원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저도 그 의미를 담아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함께 아이유애나 이름으로 기부 챌린지에도 동참하겠다”고 했다. 아이유는 2018년 챌린지 당시에도 병원 건립을 위해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는 배우 허준석, 이도현, 이주영을 지목했다.조원희는 “박보검, 아이유와 같이 호명돼서 좋은데, 션 형님이 조승우랑 저랑 착각하신 게 아닐까. 일단 기분 좋으니까 참여하겠다”며 재치 있는 반응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챌린지에 동참했다. 다음 타자로 배우 임시완,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야구선수 이정후를 지목했다.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2014년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소셜미디어를 타고 전세계로 확산됐다. 참가자는 24시간 안에 이 도전을 받아들여 얼음물을 뒤집어쓰거나 100달러를 재단에 기부하면 된다. 양쪽에 다 참여해도 된다. 보통 참가자들은 이 도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참가자 세 명을 지목하면서, 자신이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다.[마이데일리 = 한혁승 기자] 가수 아이유가 20일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진행된 영화 '밀수' VIP 시사회에 참석했다.(한혁승 기자 hanfoto@mydaily.co.kr)[텐아시아=강민경 기자]   
임영웅, 아이유, 장민호 /사진=텐아시아 DB가수 임영웅, 아이유, 장민호의 기부 행보가 눈에 띈다. 평소 선한 영향력을 알렸던 이들은 팬클럽 이름으로 기부, 남다른 팬 사랑을 드러냈다.아이유는 7월 11일 션에게 지목받아 2023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아이유는 "앞으로도 많은 분의 응원과 성원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저도 그 의미를 담아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함께 아이유애나 이름으로 기부 챌린지에도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아이유는 2018년 챌린지 당시에도 병원 건립을 위해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스버킷챌린지란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2014년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   
임영웅 /사진=텐아시아 DB아이유는 평소 아이유애나(아이유+팬클럽 유애나 합성어)라는 이름으로 기부에 앞장서 왔다. 올해에는 생일을 맞은 5월 16일 2억 5000만 원을 기부했다. 행복나눔재단에 5000만 원, 하트하트재단에 1억 원,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 취약 노인지원재단을 통해 각각 5000만 원씩 전달했다.7월 17일 임영웅과 소속사가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에 2억 원을 기부했다. 영웅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소원한다"라고 밝혔다.임영웅에 이어 팬클럽 영웅시대 역시 선한 영향력 전파에 동참했다. 영웅시대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진행, 4억 2600여만 원의 성금을 임영웅과 같은 단체에 기부했다.   
임영웅 /사진=텐아시아 DB임영웅과 영웅시대의 기부 활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2020년 3월 코로나19 극복 성금으로 1억 4500만 원, 8월에는 수재민 지원을 위해 약 8억 9000만 원을 내놓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1년 12월 취약 계층을 위해 4100만 원, 2022년 3월에는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약 2억 6000만 원을 모금했다. 또한 임영웅의 생일마다 기부하기도.7월 19일 장민호도 팬클럽 민호특공대의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장민호는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를 본 수재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라면서 "현재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를 본 이웃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장민호 팬클럽 역시 다양한 곳에 따뜻한 손길을 보내고 있다.과거에는 팬들이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면, 요즘은 아티스트가 팬들의 이름으로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팬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임영웅과 아이유, 장민호와 같이 '함께'에 중점을 두고 따뜻한 행보를 이어가는 건 박수 받을 일이다. 단어로만 보면 아티스트와 팬의 거리는 멀어 보이지만, 사실 '함께'라는 것이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함께 베푸는 이들의 관계는 이상적이다.   
임영웅 /사진=텐아시아 DB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영화 '밀수' VIP시사회가 열렸다.이날 VIP 시사회에 참석한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OSEN=최규한 기자]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영화 ‘밀수’ (감독 류승완) 쇼케이스 및 VIP시사회가 열렸다.영화 ‘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 범죄 활극이다.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VIP시사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2023.07.20 / dreamer@osen.co.kr[마이데일리 = 한혁승 기자] 가수 아이유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진행된 영화 '밀수' VIP 시사회에 참석했다.'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범죄활극이다.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 등이 연기를 펼친다.(한혁승 기자 hanfoto@mydaily.co.kr)[OSEN=최규한 기자]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영화 ‘밀수’ (감독 류승완) 쇼케이스 및 VIP시사회가 열렸다.영화 ‘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 범죄 활극이다.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VIP시사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2023.07.20 / dreamer@osen.co.kr[마이데일리 = 한혁승 기자] 가수 아이유가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진행된 영화 '밀수' VIP 시사회에 참석했다.(한혁승 기자 hanfoto@mydaily.co.kr)[OSEN=최규한 기자]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영화 ‘밀수’ (감독 류승완) 쇼케이스 및 VIP시사회가 열렸다.영화 ‘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 범죄 활극이다.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VIP시사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2023.07.20 / dreamer@osen.co.krMBC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2’ 기안84. 사진|MBC[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돈 빌려달라는 다이렉트 메시지(DM)가 절반이다”지난 23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2’에서 기안84가 다이렉트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처럼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당연하다는 듯이 금전을 요구하는 익명 누리꾼들의 행태는 고질적인 병폐다.기안84뿐만 아니라 다수의 연예인은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시지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사연도 다양하다. 딸의 병원비를 요구하거나, 가족의 사채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등록금이 없어 돈을 빌려달라는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구절절하게 호소한다.방송인 박명수는 지난 3월 자신의 라디오에서 “돈 빌려 달라는 DM을 많이 받는다”며 “그럴 시간에 돈 벌기 위해 노력해라”라고 공개적으로 일침까지 날렸다. 하지만 박명수의 직격탄에도 아직까지 돈 빌려달라는 DM이 쏟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방송인 박미선도 지난해 ‘진격의 언니들’에 출연해 “전 DM을 안 본다. 사연이 너무 딱해서 저도 한번 식사하고 힘내라고 돈을 보냈다. 이후 계속 집요하게 연락이 왔다. 나중엔 내가 빚쟁이가 된 기분이었다”라며 고충을 털어놓았다.또 방송인 홍석천은 지난해 11월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오랫동안 상담 요청과 더불어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에 시달린 사실을 털어놨다.홍석천은 “20여년 전에 커밍아웃하고 나서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 괴롭다. 자꾸 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방송인 장성규도 지난 2020년 8월, 딸의 병원비를 요구하는 한 누리꾼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일일이 힘이 돼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대들의 상황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가수 아이유는 거짓 사연으로 돈을 빌리는 누리꾼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다. 그는 지난 2018년 KBS ‘대화의 희열’에 출연, “병원비라든지 등록금, 가족들의 사채 등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다. 연락이 정말 많이 온다. 몇 개월에 걸쳐 요청하신 분도 있었다. 이분은 꼭 도와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돈을 드렸는데, 바로 얼마를 더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며칠 후 그 계정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계정이 달라져 있었다. 사연이 거짓말이었다.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 일을 계기로 단체를 통해 기부하게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다.이처럼 유명 인사들을 향한 무분별한 금전 요구와 같은 행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병폐로 자리 잡았다. 현재로서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khd9987@sportsseoul.com(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영화 '밀수' VIP시사회가 열렸다.이날 VIP 시사회에 참석한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마이데일리 = 한혁승 기자] 가수 아이유가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진행된 영화 '밀수' VIP 시사회에 참석했다.(한혁승 기자 hanfoto@mydaily.co.kr)원더월, 프로듀서 김도훈 클래스 공개'창작 노하우' 등 담은 11개 챕터 구성  
  
  
  
[서울=뉴시스] 원더월 '김도훈 클래스'. (사진=원더월 제공) 2023.07.2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종합 아티스트 IP(지식재산권) 플랫폼 원더월은 국내 최정상급 K팝 프로듀서이자 RBW 공동 대표 김도훈의 클래스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클래스는 작곡가로서의 시작과 과정, 제작자가 되기까지 아티스트 김도훈의 영감과 창작 노하우를 11개의 챕터로 담았다. 대중 음악 작곡가에게 도움이 되는 스킬과 함께 마마무 'HIP', '데칼코마니', 아이유 '하루 끝' 등 직접 작곡한 히트곡들의 구성과 만들어진 과정을 공개한다. 또 아이디어 도출부터 샘플, 코드 진행, 믹싱까지 작곡 전반을 상세하게 다뤘다. 발라드, 댄스, 인디 락 등 세부 장르별로 멘티와 문답을 주고받는 멘토링 챕터도 구성돼 있다. 원더월 클래스는 ▲뮤직 ▲필름·포토 ▲크리에이티비티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아티스트의 철학·예술이 탄생하는 과정과 창작 스킬을 담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영화 '밀수' VIP시사회가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렸다.아이유는 라임 가디건과 화이트 원피스로 멋을 냈다. 청순한 분위기가 돋보였다.한편, '밀수'는 해양 범죄 활극이다.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들 앞에 밀수판이 벌어지게 된다. 오는 26일 개봉한다.   
"단발이 너무해"   
청량 풀충전   
상큼 소녀미   
독보적 청순미[마이데일리 = 한혁승 기자] 그야말로 시상식급 연예인들이 총출동했다.20일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영화 '밀수' VIP 시사회가 열렸다. 이 영화는 류승완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가 출연해 열연했다. 배우와 감독의 인맥을 느낄 수 있는 약 60여 명의 연예인들이 VIP 시사회를 찾았다.아이유의 등장에 현장의 팬들이 환호를 터트리고 최지우의 등장에 취재진이 놀라 카메라 플래시를 터트렸다. 김혜수를 응원하기 위해 영원한 디바 김완선이 모습을 드러내자 또 놀라운 환호성이 터졌다. 최근 드라마의 인기만큼 임윤아의 등장에도 많은 환호가 터졌다. VIP 포토월의 피날레는 그룹 블랙핑크 멤버 지수의 등장이었다. 곳곳에서 "지수 진짜 맞아?" 하는 팬들의 놀라운 반응과 시상식급 게스트를 선보인 포토월의 피날레를 아름답게 마무리했다.한편 '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범죄 활극이다.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 등이 연기를 펼친다.   
▲ 사랑스러운 아이유 미소.   
▲ 김완선 '김혜수 응원하러 왔어요'   
▲ 최지우도 소환한 영화 '밀수' 인맥.   
▲ 임윤아 '천사랑이 빠질 수 없죠'   
▲ 블랙핑크 지수 '함께 밀수 즐겨봐요'(한혁승 기자 hanfoto@mydaily.co.kr)(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영화 '밀수' VIP시사회가 열렸다.이날 VIP 시사회에 참석한 가수 아이유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인형 비주얼    
단발 여신    
점점 더 예뻐져    
♥이종석이 반한 미모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릴레이 기부 캠페인이죠,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여름도 벌써 많은 스타가 동참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박보검입니다."] 방금 보신 아이유, 박보검 씨의 기부 챌린지는 걸그룹 오마이걸의 '미미'씨로, 또 래퍼 '이영지' 씨 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전 세계가 함께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5년 만에 다시 시작된 건데요.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근육이 수축되는 루게릭병 환자의 고통을 얼음물을 통해서나마 이해하고 관심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선 당시에도, 또 올해 역시 가수 '션'씨가 주축이 돼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자로 지목 받은 스타들은 직접 얼음물을 맞기도 하고, '더 글로리'의 송혜교, 이도현, 임지연 씨, 배우 정우성, 김태희 씨처럼 얼음물 대신 기부를 한 뒤 인증서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모처럼 돌아온 착한 챌린지가 어떤 성과를 남길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잇슈 연예 김진현이었습니다.■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텐아시아=조준원 기자]가수 아이유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밀수' VIP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범죄활극.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 등이 출연하며 오는 26일 개봉한다.조준원 기자 wizard333@tenasia.co.kr[텐아시아=조준원 기자]가수 아이유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밀수' VIP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범죄활극.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 등이 출연하며 오는 26일 개봉한다.조준원 기자 wizard333@tenasia.co.kr(20)악플이 투영하는 한국사회 비혼 인식타인의 삶에 관한 존중…더 좋은 세상의 첫걸음사회 현실이 된 비혼, 이젠 공존의 시대로편집자주결혼이 필수가 아닌 세상. 비혼을 선택한 이를 만나는 것은 낯선 경험이 아니다. 누가, 왜 비혼을 선택할까. 비혼을 둘러싼 사회의 색안경만 문제는 아니다.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막연한 시선도 존재한다. 이른바 '비혼 라이프'의 명과 암을 진단해본다.  
  
  
  
배우 박보검이나 아이유가 만약 청혼한다면 비혼에 관한 생각은 달라질까. 도발적인 물음과 함께 시작한 [비혼시대] 기획은 일반인의 인식을 투영했다. 선망에 그리는 유명 연예인이 자기에게 청혼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할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물음을 던진 이유는 비혼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색안경을 깨뜨리는 첫걸음을 내딛기 위함이다. 비혼에 관한 생각은 변동 불변의 확고한 인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 비혼을 선언한 이가 훗날 결혼에 이른다고 해도 그 선택을 존중하면 어떨까. 삶의 선택은 결국 각자의 판단에 달린 것이기에…. ‘못 바꾸는 것은 프로야구밖에 없다’는 두 번째 [비혼시대] 기획도 그런 맥락을 반영한 내용이다. 프로야구 팬들은 한 번 선택한 '최애(가장 좋아하는) 팀'을 평생 유지한다는데, 비혼도 그럴까에 관한 의문을 담았다. [비혼시대] 기획을 지난해 12월부터 구상해서 올해 3월 첫 편을 내보내기까지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다. 이번 기획은 구상부터 마무리까지 반년 이상에 걸친 고민의 결과물이 녹아 있다.   
  
  
  
비혼은 이미 우리 사회의 일부가 된 현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는 비혼을 남의 얘기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주변에 수많은 비혼인이 있는 데도, 비혼은 특별한 사람이 선택하는 그런 결정으로 바라본다. 남녀가 나이를 먹으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손주를 보고 생을 마감하는 과정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 20~30대는 물론이고, 40대 이후에도 결혼하지 않았거나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주변에서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결혼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할 생각을 접은 이들. 우리 사회는 그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들은 정말 출산율 저하의 주범일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이들일까. 어쩌면 그런 인식도 우리 사회의 색안경을 투영하는 것은 아닐까. [비혼시대] 기획을 20회까지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물음을 던져봤다. 비혼을 막연한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도록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 지도 생각해봤다. 그래서 더욱 비혼인이 겪는 현실의 고민과 아픔에 천착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를 만났다. 비혼의 삶을 살아가는 중년 남성, 충분히 준비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젊은 비혼 여성, 동성 배우자가 있는 사회적(법적) 비혼인 그리고 비혼 출산 문제에 관한 지원을 고민하는 국회의원까지. 비혼 전문가부터 일반인,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비혼에 관한 우리 사회의 오해와 벽이 무엇인지도, 넘기 어려운 과제가 무엇인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   
  
  
  
생동성 연애 / 사진=MBC 제공[비혼시대] 기획은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다. 그 발걸음이 이어져 공존의 세상을 위한 토양이 비옥해진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비혼시대] 기획에 관한 대중의 평가, 그것에 담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들여다봤다. 아프고, 안타깝고 때로는 억울하고 어쩌면 뼈를 때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의견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자 다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과정인지도 모른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애를 만들어야 할 시국에 잘하는 짓이다!"([비혼시대]7회, 결혼하지 않을 직원도 축의금·경조휴가)"국가가 존재하려면 국민이 있어야 하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데, 결혼하고 자녀 있는 사람 더 주자고 해야지."([비혼시대]12회, 기혼vs 비혼 사내복지 2000만원 격차)"여성 인권만 생각하고 태어날 애들 생각 안 해?"([비혼시대]19회, 장혜영 의원 '비혼출산 지원법' 인터뷰)  
  
  
  
인터뷰\_장혜영 정의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청년 80%가 결혼하지 않은 시대, [비혼시대]를 다루는 기획을 연재하는 동안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창에는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극소수의 선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비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악플이었다. 악플을 잘 읽어보면 우리 사회가 비혼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들이 그대로 읽힌다.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말은 똑바로 하자". [비혼시대] 시리즈 첫 글에 달린 댓글 중 하나다. 기사에서 언급된 "'비자발적 비혼'을 선택한 이에 대해 무능력한 인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형적 사례이기도 하다. "결혼은 사치재다", "디카프리오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비혼"이라며 동조하는 댓글도 줄줄이 달린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결혼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보는 최근 시각과는 결이 맞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비혼 직원에게 축의금이나 경조휴가를 주는 최근 트렌드를 기사화한 7회와 12회에도 '기업이 비혼을 장려하는 것이냐'며 우려하는 댓글들이 잔뜩 달렸다. "저출산 대책에 역행하는 기업", "나중에 애 안 낳고도 출산휴가 쓰자고 하겠다", "비혼들이 제일 잘 사는데 이상한 짓을 한다", "비혼자와 딩크족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비혼자들은 매체 노출을 꺼렸는데,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저출산'은 개인의 선택인 결혼과 출산을 국가의 미래와 연관 짓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온 것인지도 모른다.  
  
  
  
'비혼 출산'을 다룬 3회, 17회, 19회 기사에 대한 관심도 컸다. '비혼출산 지원법'을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인터뷰 기사에는 "애들이 장난감이냐", "아빠도 없이 자랄 아이는 뭔 죄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프랑스는 비혼 출산율이 60%가 넘는다'는 내용이 담긴 17회 기사에는 "프랑스 사회가 좋은가, 가정은 해체되고 문화는 뒷걸음치고 사회질서는 무너지고 있다"는 댓글이 달렸다. 사회의 부정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미 비혼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13회와 18회는 비혼인들의 부동산·재테크 커뮤니티를 다뤘다. "지금 30살 제일 건강할 때니까 가능해 보이지, 한 명이라도 아파봐라 '엄마' 소리 나올 것", "진짜 가족도 같이 살기 힘든데 취미 같은 사람들끼리 잠시 위안은 되겠지만 그뿐"…. 어김없이 악플이 달렸다. 40대 중년 비혼을 다룬 14회에도 "주위 비혼자들 보면 대부분 술로 외로움을 달래면서 살아간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라. 생각이 바뀐다"는 댓글이 달렸다. 비혼인들에 관한 편견의 그늘은 생각보다 깊고 짙었다. 언젠가 비혼을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는 시각. 타인의 미래를 쉽게 예단하고, 규정 짓는 모습은 아닐까.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낯설어지는 사회는 모두에게 불행하다. 보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 비혼시대는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현실이고, 우리가 경험할 미래는 악플로 막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텐아시아=조준원 기자]가수 아이유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밀수' VIP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범죄활극.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 등이 출연하며 오는 26일 개봉한다.조준원 기자 wizard333@tenasia.co.kr12년간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에 힘쓴 가수 션이 병원 착공 소식을 알리며 2023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10일 시작했다. 션의 지목을 받은 가수 아이유, 배우 박보검, 조원희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이어갔다.  
  
  
  
  
  
  
  
  
  
  
  
  
  
 루게릭병(근위축성측색 경화증·ALS) 환자를 위한 재단법인 ‘승일희망재단’의 대표 션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3 아이스버킷 챌린지 부활 소식을 알렸다. 그는 “루게릭병 환우 박승일 농구코치가 2002년부터 꿈꾸었던 국내 최초 루게릭요양병원이 올해 드디어 착공하게 되었다. 총 예산은 203억원”이라며 “병원 건립은 이제 더 이상 박승일 한 사람의 꿈이 아닌 우리들의 꿈이 됐다. 착공을 시작으로 완공을 기대하며 벽돌 한 장씩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했다.   
  
  
  
박승일(왼쪽), 션. 중앙포토 그는 “2009년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박승일 농구선수를 만나고 그가 꿈꾸던 대한민국 첫번째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긴 여정이었고, 쉽지 않은 길이었다”며 “제가 생각하는 선행의 의미는 내가 먼저 하는 행동이기에 저와 아내는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재단에 기부했고, 단 한번도 재단에서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2014년, 2018년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 온 국민이 루게릭병에 관심을 가져 주셨고 덕분에 2018년 병원이 건립될 토지를 구입하게 됐다”며 “희망을 품고 계속 갈 수 있었던 건 챌린지에 함께해주셨던 수많은 분들의 힘이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이스버킷챌린지.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아이스버킷챌린지. 사진 박보검 인스타그램 캡처   
  
  
  
아이스버킷챌린지. 사진 조원희 인스타그램 캡처 2023 챌린지를 시작한 션은 다음 타자로 아이유, 박보검, 조원희를 지목했다. 아이유, 조원희, 박보검은 11일 인스타그램에 챌린지 동참 사진을 공유하며 응원했다. 아이유는 “앞으로도 많은 분의 응원과 성원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저도 그 의미를 담아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함께 기부 챌린지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유는 배우 허준석, 이도현, 이주영을 지목했다.조원희는 “박보검, 아이유와 같이 호명돼서 좋은데, 션 형님이 조승우랑 저랑 착각하신 게 아닐까. 일단 기분 좋으니까 참여하겠다”며 재치 있는 반응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챌린지에 동참했다. 다음 타자로 배우 임시완,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야구선수 이정후를 지목했다. 박보검은 “대한민국 첫 번째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2023 아이스버킷 챌린지, 션 선배님으로부터 배턴 연결 받았다. 루게릭병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보검이 다음 주자로 지목한 3명은 배우 곽동연과 더보이즈 큐, 그리고 오마이걸 미미였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2014년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소셜미디어를 타고 챌린지 참가자를 늘려간다. 참가자는 24시간 안에 이 도전을 받아들여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100달러를 재단에 기부한다. 양쪽에 다 참여하기도 한다. 한편 션은 박승일 전 농구 코치와 승일희망재단의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다.[텐아시아=조준원 기자]가수 아이유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밀수' VIP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범죄활극.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 등이 출연하며 오는 26일 개봉한다.조준원 기자 wizard333@tenasia.co.kr[텐아시아=조준원 기자]가수 아이유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밀수' VIP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범죄활극.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 등이 출연하며 오는 26일 개봉한다.조준원 기자 wizard333@tenasia.co.kr[텐아시아=조준원 기자]가수 아이유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밀수' VIP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범죄활극.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 등이 출연하며 오는 26일 개봉한다.조준원 기자 wizard333@tenasia.co.kr2023 아이스버킷 챌린지 유행… 아이유·박보검·임시완·이영지 등 참여국내 최초 '루게릭요양센터' 건립 비용 모금 위해부족 예산 약 119억원, 정부의 100억원 지원으로 20억원만 남은 상태  
  
  
  
배우 임시완(왼쪽)과 가수 아이유(오른쪽)가 2023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기 위해 얼음물을 자신의 몸에 끼얹고 있다. 찬 얼음물이 몸에 닿는 순간 근육이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체험을 통해 근육이 위축돼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된 루게릭병 환자의 고통을 잠시나마 공감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국내 최초로 세워질 '루게릭요양센터' 건립 비용을 모금하기 위해 이뤄진다./사진제공=인스타그램 캡처"앞으로도 루게릭 환우분들을 향한 응원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면 합니다."지난 11일 인스타그램 영상에서 가수 아이유가 얼음물을 끼얹으며 한 말이다. 같은 날 배우 박보검이, 12일에는 배우 임시완이 자기 몸에 찬물을 뿌렸다. 가수 이영지는 지난 13일 트위터에 "얼음물을 맞는 대신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널리 퍼졌으면 합니다"라며 승일희망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한 인증샷을 올렸다.2014년과 2018년 이른바 '루게릭병'으로 불리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환우를 응원하기 위해 시작됐던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올해 다시 성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루게릭요양센터'가 착공을 앞뒀기 때문이다. 건립 총예산 203억6000만원. 모금액을 제외하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119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그러나 14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루게릭요양센터 건립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승일희망재단이 보건복지부의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재단 관계자는 "어제(13일) 승일희망재단이 예산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며 "그것까지 고려하면 현재 부족한 건립비는 약 20억원으로 이번 챌린지를 통해 모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2023년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이자 지누션의 멤버 가수 션으로부터 시작됐다. 션은 지난 10일 "루게릭요양병원 건립, 착공을 시작으로 완공이라는 현실을 기대하며 벽돌 한 장씩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2023 아이스버킷챌린지를 시작한다. 24시간 안에 얼음물을 뒤집어쓰거나 10만원을 루게릭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기부하라"며 챌린지에 참여할 연예인들을 지목했다.승일희망재단은 2011년 설립된 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농구선수였으나 2002년 루게릭병에 걸린 박승일씨의 이름을 땄다. 박씨는 션과 함께 재단의 공동 대표다. 재단은 국내 최초의 루게릭요양센터 건립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2018년 건설 부지 확보 이후 5년간 노력한 끝에 오는 9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박씨가 "이건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루게릭병 환자들은 큰 고통을 겪는다. 운동신경세포가 소실돼 근육이 약화하고, 사지가 마비된다. 음식물을 삼킬 수도 없으며 증상이 심하면 숨쉬기조차 어려워 사망하고 만다. 의식은 일반인과 똑같지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어 24시간 가위에 눌린 것과 같은 상태로 지내야 한다.환자를 종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간병하는 가족의 고통도 크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국내 수 천개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있지만 루게릭병 환자만을 위한 시설은 없다. 재단이 루게릭요양센터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루게릭요양센터는 경기도 용인시에 만들어진다. 규모는 지상 4층, 지하 2층이며 76병상을 보유할 예정이다. 입원실, 진료실, 물리(작업)치료실, 강당, 목욕실, 휴게실, 식당, 옥외 정원 등을 갖춘다. 오는 9월 계획대로 착공하면 2024년 10월 준공 및 개원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의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사업'에 신청하려면 내년 하반기 안에 전문요양병원 완공이 가능한 사업 계획을 보유해야 한다. 신축될 건물은 최소 75병상 이상 보유해야 한다. 승일희망재단과 루게릭요양센터는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다.지금까지 루게릭병을 완치할 약은 나오지 않았다. 김현진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효과를 입증해 승인받은 약제는 '리루졸'과 '에다라본' 두 가지가 있다"며 "두 약제 모두 증상을 호전시킬 순 없고 악화 속도를 늦춰주는 정도의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했다.지난 5월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젠이 개발한 루게릭병 치료제 '토퍼센'(tofersen)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이 치료제는 'SOD1'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루게릭병 환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교수는 "원인 유전자를 타깃해서 없애는 치료가 시도되지만 대부분 루게릭병 환자는 산발성이고 원인이 유전자가 아니다"고 덧붙였다.‘불꽃밴드’. 사진 ㅣMBN사랑과 평화, 이치현과 벗님들이 1970년대부터 이어온 한국 밴드 음악의 자존심을 건 진검승부를 벌인다.MBN 밴드 경연 버라이어티 ‘불꽃밴드’가 오는 8월 3일(목) 밤 10시 20분 첫 방송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레전드 밴드들의 불꽃 전쟁을 엿볼 수 있는 인터뷰가 공개된다.‘불꽃밴드’는 대한민국 레전드 밴드인 사랑과 평화(45년), 전인권밴드(44년), 이치현과 벗님들(44년), 다섯손가락(39년), 권인하밴드(39년), 부활(37년), 김종서밴드(36년)가 출격해 매주 불꽃 튀는 경쟁을 펼치는 밴드 경연 버라이어티다. 각 밴드들은 2MC 김구라-배성재가 발표하는 미션에 따라 자존심을 건 경쟁을 펼치며, 경연 순위가 ‘관객 투표’ 100%로 결정되는 만큼, 심장을 옥죄는 역대급 무대가 탄생할 전망이다.‘평균 경력 40년’, ‘총합 경력 284년’으로 대한민국 밴드계의 역사를 쓴 7개 팀은 최근 첫 무대를 앞두고 긴장감과 기분 좋은 흥분이 느껴지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중 1970년대에 데뷔해 40년 넘게 한국 밴드 음악의 자존심을 이어온 사랑과 평화, 이치현과 벗님들의 새로운 도전과 맞대결에 뜨거운 시선이 쏠린다.먼저, ‘소울 펑크’ 장르를 주무기로 무대를 주무르는 ‘맏형 밴드’ 사랑과 평화는 이철호를 중심으로, 이권희(키보드), 정재욱(드럼), 박태진(베이스), 이해준(기타) 등 멤버들이 뭉쳤다. 이철호는 팀 재편에 대해 “사실 1999년에 새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20년 넘게 함께하다가 중간에 멤버를 하늘로 떠나보내기도 했다. 새 멤버는 오디션으로 뽑았는데 음악도 잘해야겠지만 인성을 중요하게 봤다”고 밝혀 새로운 팀워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이권희는 ‘밴드로서의 전성기’를 묻는 질문에, “사랑과 평화의 전성기는 1980년대 중반쯤 ‘울고 싶어라’로 활동할 때 같다”며 “당시 KBS홀이 4천석 정도였는데 만석에다 줄이 30~40터씩 이어졌다. 인기로 보면 요즘 아이유가 잠실 실내 체육관을 꽉 채우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밝혔다.박태진은 “‘장미’가 히트 쳤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전교생이 그 노래를 다 부르고 다닐 정도였다”고 어마무시했던 인기를 회상했다. 이권희는 “우리 밴드의 음악적인 전성기는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한다. 음악적 완성도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경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특히 2023년 ‘불꽃밴드’를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에 대해 이철호는 “사실 예전부터 경연 프로그램 섭외가 들어왔었는데 전부 거절했다. 그런데 ‘불꽃밴드’ 섭외가 왔을 때는 생각이 달라졌다. 한국 밴드들이 다시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가차 없이 승낙했다”고 ‘밴드계의 맏형’으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이권희는 “우리는 방송을 한 적이 별로 없어서 인지도가 제일 낮다. 그래서 경연에서 불리할 것 같다”고 솔직하게 점쳤다.이치현과 벗님들은 7인조로 무대를 가장 풍성하게 채울 전망이다. 이치현을 필두로, ‘불꽃밴드’의 유일한 홍일점인 표명주(건반)와 천상용(건반), 박문철(퍼커션), 김치열(베이스기타), 오세홍(기타), 임길상(드럼)이 함께하는 ‘이치현과 벗님들’은 사랑과 평화처럼 자신들의 전성기를 1980년대 중반으로 꼽았다.이치현은 “가장 아름답고, 진짜 음악 같은 음악을 했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1984년이다. 대학로에 입성해서 3년 가까이 콘서트만 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소극장 공연이다. 관객들이 바로 코앞에서 밴드가 땀 흘리고 침 튀는 걸 느끼면서 같이 놀고 가시는 무대. 관객들도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신다”며 ‘불꽃밴드’를 통해 당시의 감격을 부활시키겠다는 각오를 전했다.이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3년 동안 무관중으로 녹화를 했더니, 음악이 제대로 안 나왔다. 신인으로 돌아간 느낌으로 많이 당황했다. 새삼 관객 분들과 팬 분들의 소중함을 느꼈다. (‘불꽃밴드’에서) 모두가 다함께 즐기는 무대가 되도록 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마지막으로 두 밴드는 1970년대 동시대 데뷔해 한국 밴드 음악의 자존심을 지켜온 밴드로서 선의의 대결을 예고했다.사랑과 평화는 “이치현과 벗님들 같은 경우, 멤버들이 전부 코러스도 할 정도로 어느 정도 보컬이 가능하기 때문에 견제가 된다. 하지만 이치현과 벗님들의 ‘사랑의 슬픔’과 ‘집시여인’ 같은 곡은 우리 스타일로 만들면 사운드가 더 잘 올라올 것 같다”라고 은근히 도발했다.이치현과 벗님들 역시 “사랑과 평화가 서로 합을 오래 맞춰온 팀이고, 항상 연습을 부단히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게 밴드로서 공연했을 때 확실히 드러나서 견제가 된다”면서도 “늘 패기가 있으셔서 에너지를 얻는다. 같이 건강 조심하면서 잘 끝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수많은 아이돌, 그 안에는 자신만의 예술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아티스트들이 존재합니다. 나아가 홀로서기에 성공한 아티스트들은 자신만의 예술을 더욱 확장시켜 나갑니다. 멤버 '개인'을 아티스트로 집중 조명하는 엑스포츠뉴스만의 기획 인터뷰 '아이돌티스트'. 엑스포츠뉴스가 만난 '아이돌티스트' 열한 번째 주인공은 그룹 미래소년 손동표입니다. <편집자주>(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게스트로 출연한 예능에서 MC 자리를 따내는 아이돌이 있다. 예능에서도 뛰어다니는데, 무대 위에선 날아다닌다. 센스와 언변은 물론 무대 위 노래, 춤, 표정까지 고루 갖춘 '만능 아이돌'. 미래소년 손동표다.손동표는 유튜브 웹 예능 '뻥쿠르트'에 출연했다가 이수지와 함께 '2MC'가 됐다.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손동표는 이날 자신의 키와 몸무게도 스스럼없이 공개했다. 이는 전략이라기보다는 감춰야겠다는 생각이 딱히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예능을 할 때만큼은 인간적으로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솔직하고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예능에서 사랑해 주시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회사에서도 "동표는 어딜 내놔도 잘하니까"라는 반응이었다. 손동표는 오히려 "격려 많이 해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신다. 자존감 올려주셔서 힘입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예능돌' 손동표의 매력을 전파시킨 여러 '짤'들도 일종의 '밈'처럼 퍼졌다. 라이브 중 과자 폭탄, 머리를 '콩' 때리고 기절하는 모습 등이 화제를 모은 것. '짤부자'가 된 것에 대해 그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온 것"이라며 웃었다. 또한 여러 아이돌 그룹들의 댄스 커버를 맛깔나게 소화하는 비결로는 "아이돌 직캠을 많이 보는 편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많이 된다"고 이야기했다.'자기 객관화'가 확실한 모습을 보여준 손동표는 아이돌 미래소년으로서, 그리고 예능인으로서 자신의 매력도 스스로 짚어냈다. 키포인트는 '갭차이'. 무대에서, 예능에서, 연기하면서 다 다르게 보였으면 한다는 손동표는 "그걸 보는 사람도 느끼게 하고 싶다"며 그 차이를 알아봐 주길 바란다고 했다."예능에서의 모습은 '엔프피(ENFP)' 면모들을 더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항상 생각하는 게 (저를 보고) 기분이 좋고, 활력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무대 위에서는 퍼포먼스와 음악에 제가 묻어나려 하고, 그걸 전달시키려고 노력해요."손동표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대중에 눈도장을 찍은 만큼, '본업'인 가수에 맞게 무대나 퍼포먼스, 음악적인 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재데뷔 후엔 그의 밝고 통통 튀는 매력이 사랑받으며 예능적인 면이 부각되기도.보컬이나 춤 실력도 빠지지 않는 천생 아이돌인 그는 이 때문에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라는 괴리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결국은 "난 예능에서도, 무대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라는 해답을 찾게 됐다.그는 "난 꾸준히 내 할 일을 열심히 해내는 사람이어야겠다 생각했다. 예능에서 부각이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예능을 보고 '나의 무대까지 찾아오게 만들어야겠다' 했다"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냈다. 손동표는 무대 위와 아래, "다른 모습 보여줘야지"라는 마음을 전하며 눈을 빛냈다.    
타고난 '끼'만큼 공부와 노력도 게을리 않았다. 이는 카메라 밖,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자세가 되게 만들었다. "내가 더 밝아야지, 카리스마 있어야지 하는 생각은 버리고 지금 내 상태에 맡기려고 하는 편이다. 사람이 항상 기분이 좋지도, 항상 우울하지도 않잖나. 순간, 순간을 만끽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일이 아닌 삶에 있어서 (감정을) 감추는 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 진중한 면모를 보였다."온오프를 나누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더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왔어요. 다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수 없이 완벽하게만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됐어요. 실수를 많이 해보고, 실수하더라도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연예계에 오랫동안 종사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생각과 행동에도 깊이가 뒤따랐다. 만능 엔터테이너답게, '다방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그는 "때와 장소에 맞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아티스트로서는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악, 팬들과의 소통을 가져갈 것이고, 예능에선 웃음과 힐링을 주는 사람이고 싶다. 그는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제 삶에 '인간 손동표'가 굵게 자리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단단한 내면을 엿보게 했다.그는 인형 안에 계속해서 인형이 나오는 러시아 전통인형 마트료시카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자신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 소진돼서 바닥이 보였을 때 '저 이것도 있어요'하고 꺼낼 수 있는 게 무궁히 있으면 좋겠다"는 손동표는 벌써 또 새로운 콘텐츠를 생각 중이다. 그는 '인간 손동표'의 진중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캠핑 콘텐츠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어린 시절 장래희망은 가수도 아니고 '연예인'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 앞에서 춤추고, 연기 따라 하고, 관심받는 걸 좋아했다는 손동표가 '가수'를 꿈꾸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축제나 체육대회 무대가 있으면 무조건 춤을 추러 나갔다는 그는 단편 영화를 촬영하며 배우로 먼저 활동을 했었지만,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고. 그렇게 연기를 하던 손동표는 가수가 됐고, 예능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했다."이루고 싶은 꿈이 많아서 나중에는 (여러 방면에서 일을) 병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유 선배님처럼 멋있는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연예계에 굵게 자리를 잡고 싶어요.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아이돌티스트]②에서 계속)사진=알비더블유(RBW), DSP미디어[텐아시아=김세아 기자]   
송혜교 아이유 이도현 신민아 김우빈 이찬원 / 사진=텐아시아DB때를 가리지 않는 스타들의 통 큰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통해 많은 방송인들이 기부에 동참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10일 가수 션은 "2002년부터 꿈꿔왔던 국내 최초 루게릭요양병원이 드디어 올해 착공하게 됐다"며 2023년 아이스버킷챌린지를 시작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릴레이 기부 캠페인으로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다음 도전자 3명을 지목해 릴레이로 기부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션은 가수 아이유와 배우 박보검, 조원희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지목했고 이에 아이유는 얼음물을 뒤집어쓴 것은 물론 아이유애나(팬클럽명)의 이름으로 5000만원의 기부 사실을 인증하며 통 큰 훈훈함을 보였다.   
송혜교 아이유 이도현 / 사진=텐아시아DB래퍼 이영지는 “물을 맞는 대신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며 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비영리단체 승일희망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얼음물을 맞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나선 것.배우 이도현 또한 아이유의 지목을 받고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대신 재단법인 승일희망재단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송혜교는 자신의 SNS에 "배우 이도현님의 지목을 받아 2023 아이스버킷 기부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는 글과 함께 승일희망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을 밝혔다.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이어 수재민들을 위해 통큰 기부에 나선 스타들이 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배우 김우빈과 신민아, 가수 이찬원이 기부 행렬을 이어 눈길을 끌었다.   
신민아 김우빈 이찬원 / 사진=텐아시아DB16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김우빈과 신민아가 수해로 피를 본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신민아와 김우빈는 2022년 동해안 산불과 올해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한 바 있듯 꾸준히 기부 행렬을 이어오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가수 이찬원도 희망브리지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알려졌다. 이찬원은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찬원은 본인뿐 아니라 팬클럽과 함께 재난 피해 이웃을 위한 꾸준한 나눔에 동참해온 스타로 2020년 수해를 시작으로 2022년 동해안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이웃을 위해 팬클럽이 함께 기부금을 모아 희망브리지에 기부한 바 있다.이들 외에도 방송인 이혜영, 배우 한효주, (여자)아이들 슈화, 유튜버 덱스 등 많은 이들이 기부 행렬에 동참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송혜교, 아이유, 이도현/사진=헤럴드POP DB[헤럴드POP=정혜연기자]송혜교, 아이유, 이도현을 비롯한 스타들의 기부 챌린지가 화제다.지난 10일 션은 자신의 SNS를 통해 "12년 동안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 참 긴 여정이었다. 쉽지 않은 길이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기에 국내 최초 루개릭요영병원건립이라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션은 "승일희망재단을 어느 재단보다도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했고 저는 12년 대표직을 맡는 동안 단 한 번도 재단에서 월급을 받지 않았다"며 "제가 생각하는 선행의 의미는 내가 먼저 하는 행함, 행동이기에 저와 제 아내 혜영이는 그동안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승일희망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이어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이라는 희망을 계속 가지고 갈수 있었던 건 지난 2014, 2018년의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함께해 주셨던 수많은 분들의 힘이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루게릭병 환우 박승일 농구코치가 환우와 가족을 위해 2002년부터 꿈을 꾸었던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이 올해 드디어 착공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션은 "총 예산 203억 원. 이제 더 이상 박승일 한 사람의 꿈이 아닌 우리들의 꿈이 돼버린 루개릭요양병원 건립, 착공을 시작으로 완공이라는 현실을 기대하며 벽돌 한 장씩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2023 아이스버킷챌린지를 시작합한다"며 챌린지를 이어갈 사람으로 박보검, 아이유, 전 축구 국가대표 조원희 선수를 지목했다.이에 아이유는 아이스버킷챌린지에 참여하며 "션 선배님의 지목을 받아 2023 아이스버킷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 최근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 착공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 축하드린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성원으로 이뤄낸 작은 기적이다. 앞으로도 환우 가족분들을 향한 응원과 성원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아이스버킷챌린지와 더불어 아이유애나와 함께 기부 챌린지에도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후 승일희망재단 공식 SNS에는 아이유가 5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아이유의 지목을 받은 이도현 역시 "2023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 대한민국 최초로 루게릭 요양 병원이 건립된다고 한다. 루게릭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라며 천만 원을 기부했다.이어 이도현의 지목을 받은 송혜교는 "대한민국 최초 루게릭 요양 병원 건립을 위해 많은 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의미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따뜻한 마음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저 역시 함께하며 응원하겠다"며 천만 원 기부 소식을 전했다.이외에도 이영지, 고민시가 천만 원을 기부하며 선행에 동참했다. 앞장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타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지금도 활발하게 챌린지가 이어지도 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아름다운 4人' 블랙핑크 지수·아이유·한지민·임윤아·정소민·정해인·이승기가 등장만으로 영화관을 빛냈다. 지수·아이유·한지민·임윤아·정소민·정해인·이승기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밀수' VIP시사회에 참석했다. 일곱명은 각자의 개성을 살린 패션으로 스타일을 완성했다. 영화관을 가득 채운 팬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시종일관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건넸다. 류승완 감독이 진두지휘, 김혜수·염정아·조인성·박정민·김종수·고민시가 출연하는 '밀수'는 26일 개봉한다. '블랙핑크 지수, 빛나는 등장'   
 '하트 발사'   
 '아이유, 돋보이는 미모'   
 '심쿵'   
 '한지민, 청순 교과서'   
 '설레는 눈맞춤'   
 '임윤아, 꽃사슴 등장'   
 '영화관이 빛나네'   
 '정소민, 탄탄한 복근'   
 '미모에 빠져봐~'   
 '정해인, 훈훈한 외모'   
 '밀수 화이팅'   
 '이승기, 올블랙 패션'   
 '밀수 재밌게 볼게요'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아이스버킷 챌린지’ 어게인 송혜교·이도현 등 1000만원 기부SNS 인증샷 올리며 선행 릴레이   
배우 박보검, 가수 아이유, 그룹 더보이즈의 선우, 걸그룹 오마이걸의 미미(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가 루게릭병 환자를 향한 관심을 호소하며 아이스버킷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출처｜각 SNS 영상 캡처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아이스버킷챌린지’가 9년 만에 다시 유행하고 있다.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캠페인에 배우 박보검, 송혜교, 아이유 등 톱스타들이 줄줄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아이스버킷챌린지는 얼음물을 머리부터 뒤집어쓰면서 루게릭병의 근육 수축 증상을 잠시 느껴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2014년과 2018년 열린 챌린지에 많은 스타들이 참여해 루게릭병을 대중적으로 알렸다. 이번에는 승일희망재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가수 션이 루게릭 요양병원의 착공 소식을 알리고, 공사비용을 모금하기 위해 10일 챌린지를 재개했다. 이후 아이유는 자신의 SNS에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영상을 올린 후 팬들과 자신의 이름을 결합한 ‘아이유애나’라는 이름으로 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박보검은 최근 tvN 예능프로그램 ‘뿅뿅 지구오락실2’에서 자신의 이름을 맞히지 못해 웃음을 자아냈던 가수 미미를 다음 주자로 지목해 “방송과 이어진다”면서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올렸다. 최근까지 배우 임시완, 이시영, 이주영, 권나라, 그룹 더보이즈 큐, 걸그룹 (여자)아이들 소연, 가수 이채연 등이 SNS로 참여했다. 특히 스타들이 챌린지 영상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기부하며 팬들에게도 참여를 독려해 선한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미미에게 바통을 이어받은 가수 이영지가 13일 “얼음물을 맞는 대신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면서 재단에 1000만 원을 기부한 증서를 공개한 SNS 게시물은 사흘 만에 5만 회 이상 리트윗(공유)됐다. 배우 송혜교, 이도현, (여자)아이들 슈화 등도 저마다 1000만 원을 기부하면서 힘을 보탰다. 최근 챌린지에 나선 그룹 더보이즈의 멤버 선우는 “다음 주자로 ‘더비’(팬덤 이름)를 지목하겠다”며 팬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팬덤 이름으로 재단에 500만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이에 팬들이 “선우의 지목을 받아 소액이지만 기부에 참여하겠다”면서 잇달아 SNS에 ‘기부 인증샷’을 올리면서 ‘선우의 지목’이라는 단어가 SNS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되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OSEN=하수정 기자] 지난 20일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영화 '밀수'(감독 류승완, 제작 (주)외유내강, 제공배급 NEW)의 미니 쇼케이스 및 블루카펫 시사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현장에는 대한민국을 빛내는 다수의 셀러브리티들이 블루카펫 시사회에 참석해 영화를 관람했다. 이들은 영화를 적극 추천해 예비 관객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영화 '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범죄활극. 올여름 더위를 물리치고 시원한 재미를 터트릴 영화 '밀수'가 20일 저녁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미니 쇼케이스와 블루카펫 시사회를 진행했다. 상영 전 '밀수'의 주역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 류승완 감독이 예비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객들의 격한 환호 속에 등장한 이들은 팬들과 다양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토크, 영화 퀴즈, '밀수' 2행시 등 다양한 팬 이벤트를 진행하고 격렬한 팬서비스로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특히 미니 쇼케이스의 말미 깜짝 손님으로 해녀 역할을 맡은 배우 박준면과 박경혜, 그리고 주보비와 세관원 역의 안세호까지 등장해 감동의 소개 시간이 이어졌다.    
'밀수' 시사회에는 대한민국의 각계 각층의 셀러브리티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갈소원, 강래연, 권해성, 금새록, 김가은, 김기방, 김완선, 김재영, 김지연, 김히어라, 도상우, 류승룡, 류현경, 모건후, 문정희, 박중훈, 박태환 선수, 박하준, 박효준, 박훈, 박희순, 배인혁, 배정남, 서이숙, 손현우, 슬비(소녀주의보), 아이유, 안보현, 양지은, 유선, 유선호, 윤경호, 윤도진, 윤상현, 윤소이, 윤지민, 이승기, 이열음, 이호정, 이화겸, 임윤아, 임지연, 장기하, 장도윤, 장민호, 장윤주, 전효성, 정만식, 정소민, 정해인, 제아, 조성윤, 조성하, 조아람, 주호민, 지성(소녀주의보), 지수(블랙핑크), 진영, 차승엽, 침투부(이병건), 최지우, 피식대학(정재형, 김용주, 최민수), 한지민 (가나다순) 등이 참여해 영화에 대한 관심을 입증했다. 영화 상영 후에는 긴 시간 동안 박수가 터져 나오며 오랜만에 여름 극장가를 찾아온 오락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일 저녁 상영 종료 후부터 각종 소셜 미디어는 '밀수'를 키워드로 한 영화 감상이 타임라인을 가득 채웠다. “기대보다 더 재미있다”, “극장가서 볼 영화라는 게 이런 거인 듯”, “지상과 수중 액션을 보는 내 눈이 너무 즐겁다”, “오락 영화. 부모님도 친구도 좋아할 듯”, “​<밀수> 이써어~”, “올여름은 시원하게 '밀수'!”, “시원하고 짜릿하게! '밀수' 올여름 제대로 터진다!” 등 다양한 추천 코멘트들이 예비 관객들의 관심을 자극 중이다. 각종 릴레이 시사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차근히 개봉을 기다리는 영화 '밀수'는 금주 주말 부산-대구 스페셜 무대인사를 진행한다. '밀수'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극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hsjssu@osen.co.kr[사진] NEW[뉴스엔 홍밝음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7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VIP 시사회 포토월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졌다.#이지은 #아이유 #LeeJieun #IU #밀수 #Smugglers #VIP시사회 #포토월[뉴스엔 이재하 기자] 영화 '밀수' VIP시사회가 7월20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렸다.이날 배우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 류승완 감독이 참석했다.[뉴스엔 이재하 기자] 영화 '밀수' VIP시사회가 7월20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렸다.이날 배우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 류승완 감독이 참석했다.[서울=뉴시스] 아이유. 2023.07.10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서예진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미디어 아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극과극 스타일을 뽐냈다.아이유는 10일 소셜미디어에 두 가지 콘셉트의 사진을 올렸다. 꽃으로 장식된 원숄더 드레스와 사랑스러운 단발머리를 한 모습은 여신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더불어 검은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허리를 드러낸 올블랙 패션은 시크하고 고혹적인 매력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뉴시스] 아이유. 2023.07.10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이와 함께 아이유는 "이건 무조건 재미있을 것. 순간"이라고 썼다. 데뷔 15주년을 맞이해 여는 미디어 아트의 홍보에 나선 것. 이에 팬들은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내고 있다.아이유의 ‘순간,’ 전시는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더 서울라이티움에서 개최된다.금·토·일 한정 선착순 지급  
  
  
  
도미노피자 아이유 브로마이드. (사진=도미노피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도미노피자가 7일부터 30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마다 전속 모델인 아이유(IU) 브로마이드 지급 이벤트를 국내에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아이유 브로마이드 증정 이벤트는 도미노피자의 '치즈 크레이프 샌드 피자(L)'를 구입하거나 최종 결제 금액이 3만원을 넘는 온라인 포장 주문한 19세 이상 온라인 성인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아이유 브로마이드는 매주 금·토·일요일 선착순 5000명에게 아이유 브로마이드 지급하고, 주차 별로 다른 종류를 제공한다. 브로마이드를 수집한 고객에겐 SNS(사회관계망)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뉴스엔 이재하 기자] 영화 '밀수' VIP시사회가 7월20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렸다.이날 배우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 류승완 감독이 참석했다.[뉴스엔 이재하 기자] 영화 '밀수' VIP시사회가 7월20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렸다.이날 배우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 류승완 감독이 참석했다.